

기발한 아이디어로 발명하라

노벨상을 패러디한 ‘이그노벨상’

글 / 김민주 (리드앤리더 컨설팅 대표, www.emars.co.kr)

노벨상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노벨상은 인류 복지에 가장 구체적인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라는 1895년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00년 노벨 재단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노벨상에는 물리학, 화학, 생리학/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1980년대에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머튼 밀러 시카고대학 교수에게 시카고트리뷴지의 어느 기자가 노벨상을 받으니 어떤 점이 달라졌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노벨상 수상자는 두 가지가 바뀌었다고 했다. 하나는 자신이 초청받아 강의를 하면 강의료가 예전에 비해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또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는 강의장에 가서 자신이 강의를 하면 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허튼소리를 해도 청중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다는 것이다. 노벨상의 파워는 이처럼 강력하다.

그런데 이런 명망있는 노벨상을 잔뜩 패러디한 상이 1991년부터 수여되고 있다. 이른바 이그노벨상(Annual Ig Nobel Prize)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유머 과학잡지인 《애널스 오브 임프로버블 리서치(AIR: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가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물리학, 생물학, 의학, 수학, 문학, 평화, 경제, 사회학, 위생, 환경보호 그리고 여러 학문 분야와 관계가 있는 연구 등 10개 분야에서 ‘반복될 수 없거나 반복되면 안 되는(that cannot, or should not, be reproduced)’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기발한 아이디어, 획기적이고 이색적인 업적을 한 사람에게 이그노벨상을 수여한다. 그래도 수상 기준은 엄격하여,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공신을 인정받은 업적 중에서 선발되고 있다.

이색적인 과학업적에 수상하는 이그노벨상

왜 ‘이그노벨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이그(ig)는 노벨(Nobel)을 연상케 하는 고상함(noble)의 반대말인 ‘품위없음’을 의미하는 이그노블(ignoble)을 말한다. 따라서 풀어 쓰면 Ignoble Nobel Prize이다. ‘이그’는 우리나라 말로도 진절머리칠 때 쓰는 말이라 어감도 비슷하다. 수상 날짜도 매우 신경 써서 정했다. 매년 10월 진짜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기 1~2주 전에 수여된다.

2007년 10월 4일 미국 하버드 대학교 샌더스 극장(Harvard's Sanders Theatre)에서 제17회 이그노벨상(Annual Ig Nobel Prize) 시상식이 열렸다. 2007년 이그노벨상 수상자들과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의학상 : 브라이언 윌트컴(영국 글로스터 왕립의료원), 댄 메이어(미국 칼 삼키기 묘기자) - ‘긴 칼(sword)을 삼켰을 때,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과 부작용에 대한 연구’ - 칼 삼키기 차력사들의 증상과 위험성을 밝혀냈다.
- ◎ 물리학상 : 라크슈미나리아난 마하데반(미국 하버드대) 엔리케 세르다 비야블랑카(칠레 산티아고대) - ‘침구류의 주름 패턴에 대한 연구’ - 하버드대 응용수학과 마하데반



교수는 네이처(Nature)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침대보의 주름 패턴을 모델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이 때, 침대보의 주름은 사람이나 동물 피부의 주름과 유사하다고 한다.

- ◎ 생물학상 : 요하나 반 브론스베이크(네덜란드 에인트호번공대) - '침대에 사는 벌레와 해충 박테리아 연구' - 수많은 침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진드기, 벌레, 등등의 분포를 조사했다.
- ◎ 화학상 : 야마모토 마유(일본 국제의료센터) - 쇠뿔에서 바닐라 향료 추출하기
- ◎ 언어학 : 후안 마누엘 토로, 조세프 트로발론, 누리아 세바스티안 가예스(이상 스페인 바르셀로나대) - 쥐는 일본어를 거꾸로 발음하는 사람과 독일어를 거꾸로 발음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주장(쥐는 일본어와 독일어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 ◎ 평화상 : 미국 공군 라이트연구소 - '적군 병사들을 서로 유혹하게 하는 게이폭탄 연구' - 이 폭탄의 주 아이디어는 적군이 서로 간에 성욕을 느낄 수 있는 최음성의 화학물질을 개발하여, 적군을 방해함으로써 무기를 사용한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아주 평화로운 방식으로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다.
- ◎ 영양학상 : 브라이언 원싱크(미국 코넬대) - '바닥이 안 보이는 수프 그릇을 이용한 인간의 무한한 식욕 연구' - 실험결과 끝이 안 보이는 수프그릇을 통해서 평소량의 75%나 더 먹게 되었다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왔고, 이는 곧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음식을 적게 담으라는 큰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 ◎ 경제학상 : 귀정세(대만) - '은행 날치기범을 잡는 그물 발사기 개발' - 수상자는 은행강도가 들어왔을 때 그물이 위를 덮쳐잡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1999년에 발명하여, 비정상적인 캐시 플로우(cash flow)를 절감할 수 있게 하여 세계경제에 큰 기여를 하였다.
- ◎ 항공학상 : 파트리시아 아고스티노, 산티아고 플라노, 디에고 콜롬베크(이상 아르헨티나 킬메스대) - '햄스터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이용한 제트래그(Jet lag-시차로 인한 피로) 치료법 개발' - 실험에 따르면 시차적응력 시뮬레이션(직접 햄스터를 들고 옮기는 것은 아니고, 빛을 비추는 시간의 조절을 하는 식)을 해 보니, 비아그라를 투여한 햄스터가 확실하게 시차적응을 잘했

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또 애완견이 짚는 소리를 이용해 개의 감정을 분석하는 통역장치 바우링겔(bilingual)을 개발한 일본의 게이타 사토가 평화상을 받았다. 2006년에는 하워드 스테이플턴(Howard Stapleton, 영국 CSS)도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10대의 청소년에게는 들리나 성인에게는 들리지 않는 불쾌한 고주파 잡음을 내는 전자식 청소년 격퇴기를 발명한 공로가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10대인 학생들에게는 들리지만 성인인 교사에겐 들리지 않는 휴대전화 벨소리로 곧바로 응용되었다.

이그노벨상 수상하는 벤처기업 많아지길

그동안 노벨상을 받은 한국인은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한국인은 벌써 2명이나 된다. 1999년에는 자체적으로 향기를 내는 정장 신사복을 개발한 공로로 권혁호 FnC코오롱 차장이 한국인 최초로 환경보호 분야에서 이그노벨상을 받았다. 또 연이어 2000년에는 문선명 통일교 교주가 1960년 36살에서 시작하여 1975년 1,800쌍, 1982년 6,000쌍, 1992년 3만 쌍, 1995년 36만 쌍, 1997년 3,600만 쌍까지 대규모 합동 결혼을 늘린 공로로 경제학 분야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그노벨상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웃게 하지만 곧 이어 생각토록 하는 연구자들의 기발한 업적을 중시한다. 이런 독특한 취지 때문에 이그노벨상은 2002년 타임지에 의해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벤처기업들도 이그노벨상을 많이 수상하기를 바란다.

